

동남아시아 문자의 역사

조흥국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언어 세계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동남아시아는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문화적으로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매우 다양하다. 동남아시아 민족들은 언어적으로 다음의 네 가지 어족으로 구분된다. 첫째 오스트로아시아(Austroasian) 어족으로, 여기에는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베트남의 비엠티(Viet)족, 크메르(Khmer)어를 쓰는 캄보디아의 크메르족, 몬(Mon)어를 쓰는 미얀마와 태국의 몬족 등이 있다. 둘째 타이-까다이(Tai-Kadai) 어족은 타이(Thai)어를 쓰는 태국의 타이족, 라오(Lao)어를 쓰는 라오스의 라오족, 샨(Shan)어를 쓰는 미얀마의 샨족 등을 포함한다. 셋째 중국-티베트 (Sino-Tibetan) 어족으로, 이는 다시 중국 어파와 티베트-버마 어파의 하위 그룹으로 구분된다. 티베트-버마 어파에는 티베트어의 티베트족과 버마어를 쓰는 미얀마의 버마족 외에도 미얀마와 태국에 살고 있는 카렌(Karen)어의 카렌족, 아카(Akha)어의 아카족, 라후(Lahu)어의 라후족, 까친(Kachin)어의 까친족, 친(Chin)어의 친족 등 여러 소수종족들의 언어가 포함된다. 넷째 오스트로네시아(Austronesian) 어족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과거에 사용되었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 모든 토착 언어들이 있으며, 또한 베트남 중부와 남부 그리고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에 살고 있는 참(Cham)족의 참어도 이 그룹에 포함된다.

<지도 1> 인도 문자의 동아시아 확산



인도 문화의 영향

인도와 중국 사이에 놓여져 있는 동남아시아는 일찍부터 운명적으로 이 두 문명권의 영향을 받아 왔다. 동-서 해상 교역로 상에 있는 동남아시아로 자연스럽게 인도 문화와 중국 문화가 흘러 들어갔던 것이다. 그 중 특히 인도 문화의 확산 범위가 훨씬 커서, 베트남을 제외한 동남아시아의 거의 모든 지역이 종교, 사상, 의식주, 궁중의식, 미술, 건축, 문학, 언어, 그리고 문자에 이르기까지 인도의 영향을 받아 소위 문화적인 “인도화”의 과정을 겪었다. 인도의 언어와 문자는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인도 문화의 영향, 특히 종교와 문학의 영향을 등에 업고 동남아시아로 들어갔다.

기원 후 첫 수 세기부터 인도의 힌두교와 불교는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지역으로 수입되었다. 그 과정에서 산스크리트(Sanskrit)어로 쓰여진 힌두교와 대승불교의 경전들과 팔리(Pali)어로 쓰여진 상좌불교의 경전들이 들어왔으며, 힌두교와 불교의 문학작품들도 소개되었다. 인도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던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점차 국가가 세워지고 제도가 정비되어감에 따라 문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인도 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이미 동남아시아에 소개된 인도의 문자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모델이 되었다.

팔라바(Pallava) 문자의 영향

동남아시아에서 문자가 발달한 곳은 대륙 동남아시아의 저지대 및 하천 유역과 도서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으로, 모두 “인도화”의 영향 하에서 상당한 수준의 제도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에서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문자들과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옛날에 사용되었던 자와(Jawa) 문자, 발리(Bali) 문자, 바딕(Batak) 문자, 람뽕(Lampung) 문자, 부기스 문자(Bugis), 그리고 필리핀에서 과거에 사용된 바 있는 따갈로그(Tagalog) 문자 등 토착 문자들은 모두 인도의 브라흐미(Brahmi) 문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브라흐미 계통의 여러 인도계 문자들이 들어왔다. 예컨대 싯담마뜨르까(Sitdammatrka)라고도 불리는 북인도의 나가리(Nagari) 문자 초기 형태는 데칸 지역과 남인도와 스리랑카로 퍼졌으며, 동남아시아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와 섬 등 대승불교가 들어간 곳과 캄보디아의 앙코르 지역에서 그 문자로 된 비문이 발견된다. 앙코르에서는 산스크리트어로 된 텍스트를 나가리 문자로 쓴 비문 외에도 팔라바 문자에서 파생한 초기 크메르 문자로 쓰여진 비문도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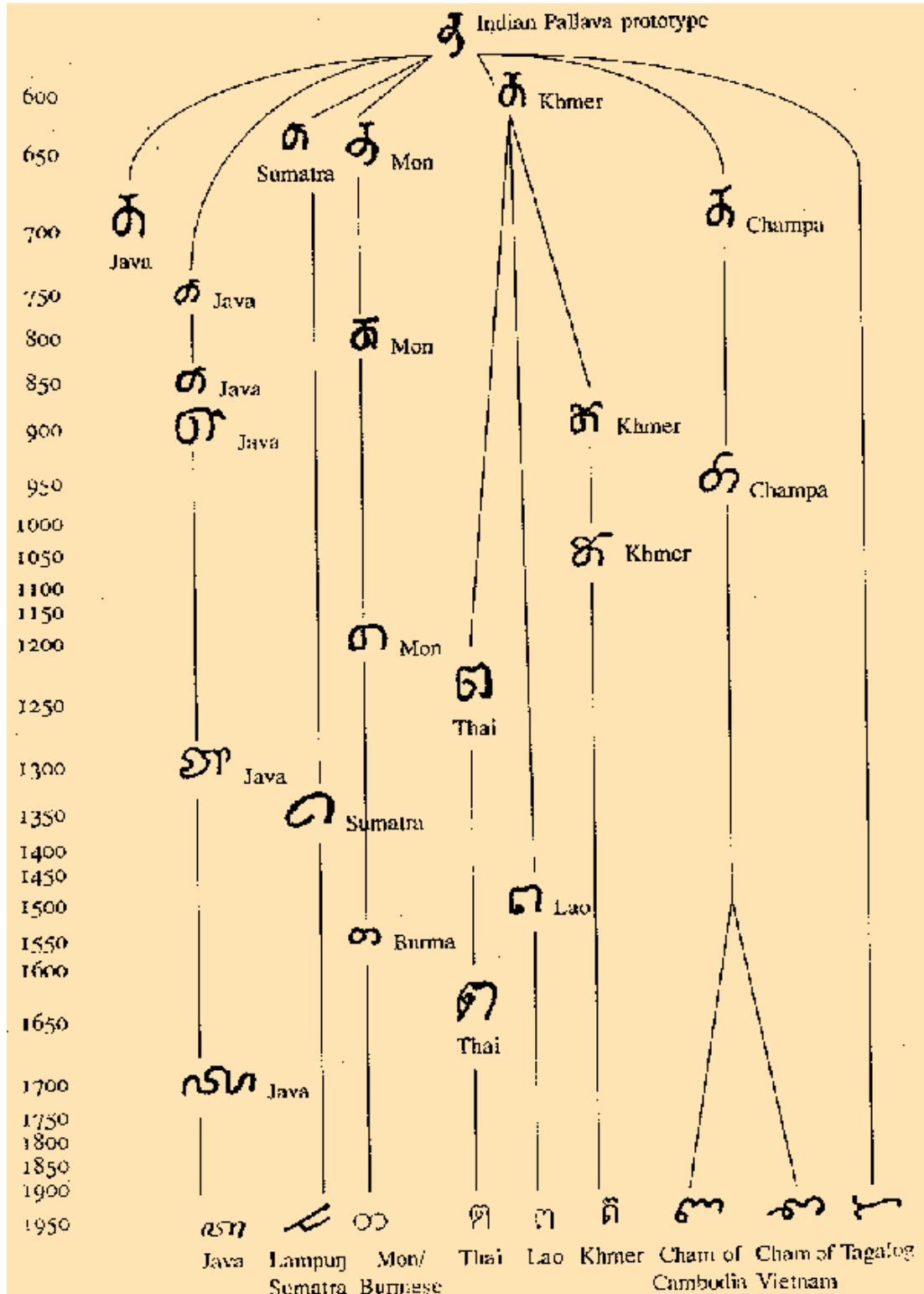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문자들의 형성에 직접적인 모델이 되었던 것은 남인도의 팔라바 왕국에서 5-8세기 기간 사용되었던 그란타(Grantha) 문자(일명 팔라바 문자)로서, 이 문자는 6세기부터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문자들을 낳기 시작했다. 팔라바 문자의 자취는 15세기까지 참파 왕국이 세력을 떨쳤던 현 베트남 중부와 남부 지역,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자와 섬, 동부 깔리만판 섬, 수마트라 섬, 그리고 말레이 반도 등지에서 확인된다. 동남아시아 문자들의 생성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팔라바 문자에서 후기에 파생한 남인도의 여러 문자들이었다.

동남아시아의 인도계 문자들의 발달 단계

인도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문자들은 네 단계를 거쳐 발달했다. 첫째 단계에서는 브라흐미 계통의 인도 문자를 써서 산스크리트나 팔리어의 종교적 텍스트를 기록했는데, 그 자취는 주로 비문에 남아 있다. 둘째 단계에서는 인도계 문자를 써서 참어, 크메르어, 자와어, 발리어 등의 동남아시아 언어의 텍스트를 기록했다. 셋째 단계에서는 인도계 문자가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각 지역의 언어적 사정에 적응하면서 나름대로 변형했는데, 그 과정은 6세기부터 시작되어 8세기 말까지 진행되었다. 이때 변형된 문자형태들 중에는 종종 인도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포함되었다. 끝으로 8세기 말부터 시작되는 네 번째 단계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여

러 지역들에서 독특한 토착 문자들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위에서 언급한 앙코르의 두 가지 비문은 첫 번째 단계에서 3·4번째 단계로의 문자 발달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1> 팔라바 문자에 기원을 둔 동남아시아 문자들의 발달



동남아시아 자체 내에서의 문자 확산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민족 문자들이 발달한 위의 네 번째 단계에서 동남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이미 발달한 문자가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에서의 문자 발달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로 미얀마에서 몬(Mon) 문자는 버마 문자의 모델이 되었고, 버마 문자는 태국의 란나(Lanna) 문자의 본보기가 되었다. 크메르 문자는 타이 문자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 브라흐미 문자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한 문자가 지역 내에서 또 다른 문자를 생성시킨 이같은 과정은 종종 “두 번째의 인도화”(Second Indianiz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동남아시아에서 “인도화” 과정은 어느 시점부터는 동남아시아의 자체적 원동력에 의해 계속 추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인도화”된 동남아시아의 정치, 문화적 중심지로부터 다른 주변 나라와 민족들로 인도 문화가 계속 전파되었던 것이다.

위의 네 번째 문자발달 단계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인도계 문자가 독특한 음성학적 구조를 가진 동남아시아의 언어들에 표기하기 위해 독창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타이어의 경우, 고유한 모음들을 표기하기 위해 추가적인 모음 기호들이 생겨났다. 또한 성조를 표시하기 위해 성조 부호를 두었고, “f” 발음을 위한 새로운 자음이 개발되었다.

베트남의 찌놈(Chu Nom) 문자

동남아시아에 대한 중국 문화의 영향은 베트남에 국한되었는데, 그것은 문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기원전 2세기에 중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 1,000년 이상 중국의 식민통치를 받았던 베트남은 다양한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다. 베트남어는 단음절로 발음되는 성조 언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베트남어로 쉽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중국 문화의 유입과 함께 일찍부터 한자가 아무런 마찰 없이 도입될 수 있었다. 베트남인들은 한국에서의 이두 문자와 비슷하게 한자를 빌어 베트남어를 표기하는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를 찌놈(字喃)이라고 부른다. 찌놈 문자는 13세기에 베트남어 시를 쓰는 데 사용되었고 그 후에는 종종 민족주의적 배경에서 사용되었으나,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19세기 이후 프랑스 식민 통치 시기에 로마자가 베트남의 문자로 정착되었다.

도서 동남아시아 문자들의 운명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나라들을 포함하는 도서 동남아시아에서 인도 문화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13세기 전의 시기에 브라흐미 문자에 바탕을 둔 자와 문자, 발리 문자, 바딕 문자, 람땡 문자, 부기스 문자, 따갈로그 문자 등의 토착 문자가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이러한 문자들은 지역에 따라 동일하지는 않지만, 19세기까지 간혹 쓰이기도 했다. 발리 문자와 자와 문자의 경우는 지금도 특별한 의식, 특히 힌두교 의식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13세기 말 이후 이슬람이 이 지역에 도입되면서부터는 이슬람 경전 즉 꾸란(Quran)의 문자인 아랍 문자가 들어왔다. 그러나 아랍 문자는 도서 동남아시아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에 비해 유럽인들이 식민 통치와 함께 들여온 로마자는 점차 공식적 문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이 지역에서 오늘날 모두 로마자가 공식적 문자로 사용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주요 문자들의 발달

(1) 몬 문자

<표 2> 미얀마에서의 문자 발달: 퓨(Pyu) 문자, 몬(Mon) 문자, 미얀마(Myanmar) 즉 버마 문자.

Brāhmi		Brāhmi derivatives		Pyu		Mon			Myanmar									
3BC-1AD	1-2 AD	3-6 AD	4-6 AD	4-6 AD	11-12 AD	7 AD	8-9 AD	11-12 AD	Clay tablet	Lithic	Lithic	Lathir	Bell (Dagun, 2nd)	Lithic	Lithic	Face and forehead	Early Pictit	Current Pictit
AD	AD	AD	AD	AD	AD	AD	AD	AD	AD	AD	AD	AD	AD	AD	AD	AD	AD	AD
𑀓	𑀔	𑀕	𑀖	𑀗	𑀘	𑀙	𑀚	𑀛	𑀜	𑀝	𑀞	𑀟	𑀠	𑀡	𑀢	𑀣	𑀤	𑀥
𑀦	𑀧	𑀨	𑀩	𑀪	𑀫	𑀬	𑀭	𑀮	𑀯	𑀰	𑀱	𑀲	𑀳	𑀴	𑀵	𑀶	𑀷	𑀸
𑀹	𑀺	𑀻	𑀼	𑀽	𑀾	𑀿	𑁀	𑁁	𑁂	𑁃	𑁄	𑁅	𑁆	𑁇	𑁈	𑁉	𑁊	𑁋
𑁌	𑁍	𑁎	𑁏	𑁐	𑁑	𑁒	𑁓	𑁔	𑁕	𑁖	𑁗	𑁘	𑁙	𑁚	𑁛	𑁜	𑁝	𑁞
𑁟	𑁠	𑁡	𑁢	𑁣	𑁤	𑁥	𑁦	𑁧	𑁨	𑁩	𑁪	𑁫	𑁬	𑁭	𑁮	𑁯	𑁰	𑁱
𑁲	𑁳	𑁴	𑁵	𑁶	𑁷	𑁸	𑁹	𑁺	𑁻	𑁼	𑁽	𑁾	𑁿	𑂀	𑂁	𑂂	𑂃	𑂄
𑂅	𑂆	𑂇	𑂈	𑂉	𑂊	𑂋	𑂌	𑂍	𑂎	𑂏	𑂐	𑂑	𑂒	𑂓	𑂔	𑂕	𑂖	𑂗
𑂘	𑂙	𑂚	𑂛	𑂜	𑂝	𑂞	𑂟	𑂠	𑂡	𑂢	𑂣	𑂤	𑂥	𑂦	𑂧	𑂨	𑂩	𑂪
𑂫	𑂬	𑂭	𑂮	𑂯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𑃐	𑃑
𑃒	𑃓	𑃔	𑃕	𑃖	𑃗	𑃘	𑃙	𑃚	𑃛	𑃜	𑃝	𑃞	𑃟	𑃠	𑃡	𑃢	𑃣	𑃤
𑃥	𑃦	𑃧	𑃨	𑃩	𑃪	𑃫	𑃬	𑃭	𑃮	𑃯	𑃰	𑃱	𑃲	𑃳	𑃴	𑃵	𑃶	𑃷
𑃸	𑃹	𑃺	𑃻	𑃼	𑃽	𑃾	𑃿	𑄀	𑄁	𑄂	𑄃	𑄄	𑄅	𑄆	𑄇	𑄈	𑄉	𑄊
𑄋	𑄌	𑄍	𑄎	𑄏	𑄐	𑄑	𑄒	𑄓	𑄔	𑄕	𑄖	𑄗	𑄘	𑄙	𑄚	𑄛	𑄜	𑄝
𑄞	𑄟	𑄠	𑄡	𑄢	𑄣	𑄤	𑄥	𑄦	𑄧	𑄨	𑄩	𑄪	𑄫	𑄬	𑄭	𑄮	𑄯	𑄰
𑄱	𑄲	𑄳	𑄴	𑄵	𑄶	𑄷	𑄸	𑄹	𑄺	𑄻	𑄼	𑄽	𑄾	𑄿	𑅀	𑅁	𑅂	𑅃
𑅄	𑅅	𑅆	𑅇	𑅈	𑅉	𑅊	𑅋	𑅌	𑅍	𑅎	𑅏	𑅐	𑅑	𑅒	𑅓	𑅔	𑅕	𑅖

약 2000년 전에 미얀마 남부와 태국 서부 지역으로 이주해 온 민족은 일찍부터 인도 문화를 받아들였다. 오스트로아시아 어족의 몬-크메르 어파에 속하는 민족은 인도의 그란타 문자의 일종인 팔라바 문자를 바탕으로 한 몬 문자를 만들었다. 몬 문자로 된 기록은 6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16세기 이전의 몬 문자 기록은 고대 몬(Old Mon)과 중세 몬(Middle Mon)으로 구분되는데, 버간(Bagan)의 아난다(Ananda) 사원에 있는 12세기 초의 몬 문자 비문들은 고대 몬에 속한다.

몬어는 1,500년 이상된 민족의 역사를 통해 음성학적으로, 문법적으로 변화했으며, 그에 따라 문자 체계도 변화를 겪었다. 예컨대 현 태국 북부의 람퐁(Lamphun)에 위치해 있었던 몬 왕국인 하리퐁자야(Haripunjaya)에서 1210년대에 제작된 비문들에서는 종성의 ‘s’ 대신 ‘h’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고대 몬에서 중세 몬으로의 발전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중세 몬의 특징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비문들은 15세기 중엽부터 나타난다. 몬 문자 발달의 최종 단계는 16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비문들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유형은 그 이후 몬어 문학작품들에서 사용되었다.

몬족은 인도와 스리랑카로부터 수입한 인도의 정치 지침서들과 상좌불교 경전을 몬어로 번역했다. 몬 문자로 쓰여진 인도의 사상과 불교는 미얀마의 버마족과 태국의 타이족에게 전파되었는데, 이를 통해 몬 문자가 버마 문자와 타이 문자에 영향을 주었다. 몬 문자가 이처럼 과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화적인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문자로 전락해 있다. 미얀마와 태국에서 소수민족으로 살고 있는 몬족은 대부분 오늘날 각각의 지역에서 버마어와 타이어를 사용한다.

몬 문자는 12개의 모음과 35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 체계로 정리되기까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몬 문자로 된 비문들에서 실제로 철자법 상 많은 불규칙이 있다. 그것은 인도계 문자의 체계가 몬어의 음성학적 체계에 적응하는 과정에

서 시대에 따라 여러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몬 문자에서 일어난 변화로 예컨대 ‘b’ 자음기호가 도입된 것을 들 수 있다. 이 글자는 ‘b’를 변형시킨 것이다. 그밖에 외래 단어들을 표기하기 위해 gh, jh, t, th, dh, ṅ, dh, ś, ! 등의 음가를 가진 자음을 만들었다.

(2) 버마 문자

버마 문자는 미얀마의 다수민족인 버마족의 버마어를 표기하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약 5,500만 명의 인구가 쓰는 미얀마의 공식 문자이다. 티베트-버마 어파에 속하는 버마족은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000년 사이에 현 중국의 간쑤(甘肅)성 지방에서 동부 티베트 지방으로 이주해 들어온 것으로 추측된다. 그들의 전승에 의하면, 버마족은 기원 2세기경 현 미얀마 중부 지방에 도착하여 수 세기간 부족사회의 형태로 살았다. 버마족은 849년에 버간 왕조를 창건했지만, 그때까지는 미얀마의 한 작은 세력에 불과했다. 버마족은 1044년에야 미얀마를 통일하고 미얀마의 지배적인 민족이 되었다.

버마족이 미얀마를 통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으로는 몬족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다. 통일의 업적을 이룬 아노라타(Anawratha 재위 1044-1077) 왕은 국가의 제도와 종교와 문화를 도입하고 정비하는 데 있어서 몬족의 사람들을 대거 이용했다. 몬족은 버간 왕국의 궁정에 고용되어 인도의 정치 문화에 바탕을 둔 궁중의식을 전수해 주었으며, 상좌불교를 전달했고, 건축과 문학에서도 그들의 기술과 지식을 가르쳐 주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몬 문자는 수단이 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통일 후 버마족은 즉시 자신의 문자를 만들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버마 문자가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12세기 초 비문들에서이다. 그 초기 형태에서 이미 버마 문자가 몬 문자를 모델로 삼아 제작되었다는 점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12세기 비문들에 새겨진 버마 문자는 네모진 형태를 하고 있는 글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오늘날의 버마 문자들이 대부분 둥근 형태를 하고 있는 점을 비교해 보면, 그 사이에 형태상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버마 문자가 몬 문자를 변형시켜 만들어진 문자라는 사실은 위에서 설명한 몬족과의 역사적 관계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버마 문자는 이처럼 처음에는 수동적인 배경에서 출발했지만, 버마족이 미얀마의 정치적, 문화적인 지배 민족의 위치를 고수함에 따라, 미얀마 내에 사는 소수민족들의 문자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 버마 문자는 산(Shan)주에 사는 타이족 계통의 산족이 쓰는 타이 야이(Tai Yai)어와 카렌족이 쓰는 카렌어를 표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밖에도 태국 북부에서 종종 쓰이는 란나 문자도 버마 문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문자이다.

버마 문자는 21개의 모음과 32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교적 단순한 인도계 문자들과 몬 문자의 모음들과 달리 복잡한 모음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버마어가 음성학적으로 매우 다른 체계에 속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버마 문자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며, 단어 사이에는 빈 공간이 없고 문장 사이에는 간격을 둔다. 문장부호로는 인도계 문자 철자법에서 빌어온 ‘।’과 ‘||’이 있는데, 각각 쉼표와 마침표에 해당된다. 둘째 버마 문자의 자음은 인도계 문자와 마찬가지로 내재적인 ‘a’[어] 음가를 갖고 있다. 내재적인 음가를 없애기 위해서는 자음 위에 ‘c’ 부호를 둔다. 셋째 버마어는 성문폐쇄음(단음), 평음, 상음 등 세 가지 성조를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모음 기호가 발달해 있다. 단모음 기호로 표시되는 성문폐쇄음은 높고 짧게 끝난다. 장모음 기호로 표시되는 평음은 저음으로 길게 소리나며, 장모음 기호 뒤에 ‘:’의 추가부호로 표시되는 상음은 높고 길게 소리난다.

미얀마는 16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오늘날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하는 태국의 북부 지방을 속국으로 두고 있었다. 이 지방에 있었던 왕국을 란나 타이(Lan Na Thai) 왕국이라고 칭하는데, 이

왕국의 민족은 타이족이었다. 란나 타이에 대한 지배의 과정에서 버마족의 문화가 이 지역에 들어왔다. 그리하여 란나 타이족의 언어는 타이어의 일종이지만, 문자는 버마 문자와 매우 비슷하다. 오늘날 태국 북부 지방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타이 문자가 사용되지만, 전통의 보존을 위해 란나 문자도 종종 쓰여진다.

(3) 크메르 문자

크메르 문자는 캄보디아의 공식 언어인 크메르어를 표기하는 문자이다. 크메르어는 다양한 언어들의 영향을 받았다. 예컨대 행정적, 군사적, 문학적, 종교의식적 용어들은 산스크리트어에서 상당 부분 왔으며, 13세기 이후 상좌불교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많은 팔리어 단어들을 차용했다. 19세기 중엽 이후 시작된 프랑스 식민 통치 기간에는 프랑스어 단어들이 특히 도시 지역에서의 구어체 크메르어에 도입되기도 했다. 또한 타이어와 중국어와 베트남어에서 온 단어들도 꽤 있다.

크메르 문자는 팔라바 문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고대 크메르 문자로 쓰여진 비문은 6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8세기가 되면 오늘날의 형태를 보여주는 크메르 문자가 발달해 있었다.

크메르 문자는 자음을 겹쳐 쓰는 등, 인도 문자의 영향이 타이 문자나 라오 문자보다 더욱 강하게 남아 있다. 약 26개의 모음과 33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모음들은 어떤 자음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발음이 난다.

(4) 타이 문자와 라오 문자

타이 문자는 태국에서 타이어를 표기하는 데 쓰이는 문자이며, 라오 문자는 라오스에서 라오어를 표기하는 데 쓰이는 문자이다. 타이어와 라오어는 타이-까다이어족에 속하는 언어로서, 상호 매우 유사하며, 문자도 그 형태상 매우 비슷하다.

타이 문자와 라오 문자는 모두 팔라바 문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먼저 등장한 것은 타이 문자이다. 타이인들은 13세기 말에 람캄행(Ramkhamhaeng 재위 1279- 1298)왕이 타이 문자를 창제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람캄행 왕 비문에 나타나는 문자는 이미 그 이전부터 발달되어 있었던 타이 문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수코타이 시대(1238-1438)에 발전된 이 수코타이 문자는 크메르 문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그것은 태국이 13-14세기 중엽까지 앙코르 제국의 크메르인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람캄행 왕 비문의 타이 문자는 오늘날 쓰이는 타이 문자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것은 수코타이 문자라고 불리는 이 문자가 그 후 형태상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수코타이 문자는 16세기 초가 되면 메콩강 중부 유역으로 확대되어, 오늘날 라오스 지역에서 라오 문자를 발전시켰다. 메콩강 유역에서 그 후 정착한 라오 문자는 타이 문자와 구분되는 형태로 발전했다. 한편 태국 동북부 지방에는 1,000만 명 이상의 라오족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들은 현재 태국의 국민으로서 학교 교육과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타이어를 말하고 타이 문자를 쓰지만, 비공식적인 일상생활에서는 라오어를 말하고 라오 문자를 쓰기도 한다. 종종 두 언어와 문자가 혼용되기도 한다. 언어와 문자가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다.

음성학적으로 풍부한 타이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타이 문자의 글자는 많아져, 32개의 모음과 44개의 자음을 갖고 있다. 한편 라오 문자는 16세기 초부터 철자법에서 차이가 발전하기 시작하여, 라오 문자의 자음들이 단순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28개의 모음과 27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오 문자는 타이 문자에 비해 글자수가 훨씬 적다. 양 문자의 철자법은 현대에 들어서서 정부가 주도하는 언어 표준화 과정을 통해 더욱 커졌다. 예컨대 -p, -t, -k의 세 가지 종성폐쇄음을 표기하는 데 라오 문자는 3개의 자음만 사용하지만, 타이 문자는 16개의 자음을 쓴다.

<표 3> 인도 문자와 동남아시아 문자들의 비교

Dentals	DEV	Guj	PUN	BEN	ORI	TIB	TEL	KAN	TAM	MAL	SIN	BUR	LAO	THA	KHM	JAV	BAL	TAG	BAT	BUG	
t	त	𑀓	𑀕	𑀗	𑀙	ཏ	త	𑀓	𑀕	𑀗	𑀙	တ	𑀓	𑀕	𑀗	𑀙	𑀓	𑀕	𑀗	𑀙	𑀓
th	थ	𑀔	𑀖	𑀘	𑀚	ཐ	థ	𑀔	𑀖	𑀘	𑀚	ထ	𑀔	𑀖	𑀘	𑀚	𑀔	𑀖	𑀘	𑀚	𑀔
d	द	𑀠	𑀡	𑀣	𑀥	ཌ	ద	𑀠	𑀡	𑀣	𑀥	ဒ	𑀠	𑀡	𑀣	𑀥	𑀠	𑀡	𑀣	𑀥	𑀠
dh	ध	𑀢	𑀤	𑀧	𑀩	ཎ	ధ	𑀢	𑀤	𑀧	𑀩	ဣ	𑀢	𑀤	𑀧	𑀩	𑀢	𑀤	𑀧	𑀩	𑀢
n	न	𑀦	𑀨	𑀪	𑀬	ཏ	న	𑀦	𑀨	𑀪	𑀬	န	𑀦	𑀨	𑀪	𑀬	𑀦	𑀨	𑀪	𑀬	𑀦
Palatals	DEV	Guj	PUN	BEN	ORI	TIB	TEL	KAN	TAM	MAL	SIN	BUR	LAO	THA	KHM	JAV	BAL	TAG	BAT	BUG	
c	च	𑀇	𑀉	𑀋	𑀍	ཅ	ఛ	𑀇	𑀉	𑀋	𑀍	စ	𑀇	𑀉	𑀋	𑀍	𑀇	𑀉	𑀋	𑀍	𑀇
ch	छ	𑀈	𑀊	𑀌	𑀎	ཅ	ఞ	𑀈	𑀊	𑀌	𑀎	ဆ	𑀈	𑀊	𑀌	𑀎	𑀈	𑀊	𑀌	𑀎	𑀈
j	ज	𑀏	𑀑	𑀓	𑀕	ཇ	జ	𑀏	𑀑	𑀓	𑀕	ဇ	𑀏	𑀑	𑀓	𑀕	𑀏	𑀑	𑀓	𑀕	𑀏
jh	झ	𑀐	𑀒	𑀔	𑀖	ཇ	ఞ	𑀐	𑀒	𑀔	𑀖	ဆ	𑀐	𑀒	𑀔	𑀖	𑀐	𑀒	𑀔	𑀖	𑀐
ñ	ञ	𑀌	𑀎	𑀐	𑀒	ཉ	ఞ	𑀌	𑀎	𑀐	𑀒	ည	𑀌	𑀎	𑀐	𑀒	𑀌	𑀎	𑀐	𑀒	𑀌
Velars	DEV	Guj	PUN	BEN	ORI	TIB	TEL	KAN	TAM	MAL	SIN	BUR	LAO	THA	KHM	JAV	BAL	TAG	BAT	BUG	
k	क	𑀌	𑀎	𑀐	𑀒	ཀ	క	𑀌	𑀎	𑀐	𑀒	က	𑀌	𑀎	𑀐	𑀒	𑀌	𑀎	𑀐	𑀒	𑀌
kh	ख	𑀍	𑀏	𑀑	𑀓	ཁ	ఖ	𑀍	𑀏	𑀑	𑀓	ခ	𑀍	𑀏	𑀑	𑀓	𑀍	𑀏	𑀑	𑀓	𑀍
g	ग	𑀔	𑀖	𑀘	𑀚	ཀ	గ	𑀔	𑀖	𑀘	𑀚	ဂ	𑀔	𑀖	𑀘	𑀚	𑀔	𑀖	𑀘	𑀚	𑀔
gh	घ	𑀕	𑀗	𑀙	𑀛	ཁ	ఘ	𑀕	𑀗	𑀙	𑀛	ဃ	𑀕	𑀗	𑀙	𑀛	𑀕	𑀗	𑀙	𑀛	𑀕
ṅ	ङ	𑀇	𑀉	𑀋	𑀍	ཀ	ఙ	𑀇	𑀉	𑀋	𑀍	င	𑀇	𑀉	𑀋	𑀍	𑀇	𑀉	𑀋	𑀍	𑀇

(Dev 데바나가리, Guj 구자라티, Pun 편자비, Ben 벵갈리, Ori 오릿사, Tib 티베트, Tel 텔레구, Kan 칸나다, Tam 따밀, Mal 말라얄람, Sin 싱할라, Bur 버마, Lao 라오, Tha 타이, Khm 크메르, Jav 자와, Bal 발리, Tag 따갈로그, Bat 바딱, Bug 부기스)

(5) 인도네시아의 문자들

자와 문자와 발리 문자 인도네시아의 자와 섬에서 최초로 나타난 문자는 까위(Kawi) 문자로, ‘까위’는 산스크리트어 ‘까비’(kavi)에서 파생한 것으로 “예지자, 시인” 등을 뜻한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까위 문자로 된 기록은 732년에 세워진 한 비문이다. 대략 500-1000년 사이에 브라흐미 문자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까위 문자는 근대 자와 문자를 낳았다. 오늘날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자와 문자는 6개의 모음과 20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람뽕 문자와 바딱 문자 까위 문자는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도 영향을 주어 이 섬의 중부에서는 바딱 문자를, 동남부에서는 람뽕 문자를 발달시켰다. 바딱 문자는 네모진 극히 단순한 모양을 가졌으며, 람뽕 문자는 바딱 문자와 까위 문자의 중간쯤이다. 말레이어를 표기하는 데 쓰였던 람뽕 문자는 6개의 모음과 18개의 자음으로 되어 있었다.